

# Bisacodyl 수요“꾸준”

## 내수 1035KG 14만달러 규모 ... 약효 우수 수요지속 전망

변비 치료제 Bisacodyl의 국내 수요가 향후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Bisacodyl국내 수요는 92년기준 1035 KG으로 금액으로는 14만3140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지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인디아·스위스·독일 등으로 나타났다.

Bisacodyl 국내 연도별 수요추이를 보면 90년 805KG, 91년 1120KG으로 전년대비 39.1% 증가했고 92년에는 91년에 비해 7.6% 감소, 1035KG을 사용했다.

금액으로는 90년 11만8626달러, 91년 15만3355달러로 29.3% 증가했고 92년에는 14만3140달러로 6.6% 감소했다.

| Bisacodyl 국내수요추이 |  | (단위 : KG, 달러, %) |         |         |         |
|------------------|--|------------------|---------|---------|---------|
| 구 분              |  | 1990             | 1991    | 1992    | 1993(상) |
| 수 량              |  | 805              | 1,120   | 1,035   | 430     |
| 금 액              |  | 118,626          | 153,355 | 143,140 | 54,200  |
| 수 량 증 감 률        |  | -                | 39.1    | ▽7.6    | -       |

이는 Bisacodyl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Bisacodyl은 CIF기준 KG당 12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isacodyl 국내 주 수요처로는 돌코락스 등을 출시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서 연간 500KG을 소비하고 있고 비코사이드를 출시하고 있는 코오롱제약에서 92년에 400KG을 사용했다.

이외 대일화학·동일신약·일양약품·중외제약 등에서 시장에 진출해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여 실제 Bisacodyl소비는 소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처별 공급선을 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서는 인디아산을 수입·사용하고 있고 코오롱제약에서는 스위스 CHEMO에서 수입하고 있다.

Bisacodyl은 인도산 약초에서 유래되기 시작해 현재는 주로 합성 Bisacodyl이 사용되고 있다.

Bisacodyl은 대표적인 자극성화제로 인체 내성등을 감안하더라도 생약에 비해 약효가 우수하고 효과가 신속해 당분간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1993/11/8>